

학교탐방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기술인 육성”

동광산업과학고

2011년도 특성화고 선정 ... 첨단화된 산업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

고성군 토성면에 자리 잡은 동광산업과학고등학교(교장 김석기)는 1954년 5월 농업과 3학년 인 동광농업고등학교로 개교해 1992년 동광농공고등학교로, 2010년 동광산업과학고등학교(이하 동광고)로 교명을 변경했다.



김석기 교장

동광고는 올곧은 인성과 경쟁력을 갖춘 신기술인 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카테크튜닝과, 산업중장비과, 컴퓨터응용기계과, 전자기계과, 조리과학과, 원예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 학생이 졸업 전에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해 진학과 취업에 활용하고 있다.

2011년 특성화고로 지정된 동광고는 전교생이 수업료 지원을 받고 있으며 교육청으로부터 취업강화특성화비 6천만원, 노동청취업강화지원비 2천800만원을 지원 받아 이를 재원으로 1학년은 국·영·

수 위주의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프로그램, 2~3학년은 굴삭기 운전, 지게차 운전, 특수용접, 컴퓨터 정비, 한식조리 필기, 생활원예, 기관정비, 새시정비, 유압, 수치제어, 범용선반, 한식조리 실기, 제과제빵 등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도하고 있다.

또한 평생 직업능력 배양을 위한 창업동아리(원예과-코아니, 조리과학과-엔티크) 활동과 현장 견학을 통한 체험 활동, 취업박람회 참가, CEO초청 특강, 기술명장 초청 특강, 신기술 실무 강좌 등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창의성 계발과 진로 선택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동광고에서는 학생의 진로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모두 협력해야 한다는 방향을 세우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취업캠프, 진로 직업 센터, 진로지도 운영 협의회 등을 통해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넓히고 주기적인 모니터링 평가 및 환류(Feed Back)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광산업과학고등학교 전경.

학교측은 학생들의 직업 진로뿐 아니라 올곧은 인성교육에도 힘쓰기 위해 2011년 4월부터 그린마일리지제(상·벌점제)를 도입해 학생들의 올바른 문화 형성에도 힘쓰고 있다. 또 매년 ‘빛오름제’라는 학교 축제를 통해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아온 기술과 끼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있다.

동광고는 ‘선취업·후진학’이라는 교육철의 전문계고 특성화 방침에 따라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수·학습을 실시하고 있으

며 학생들의 창의 인성 및 진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오늘도 동광고 학생들은 각종 기능대회 준비로 늦은 저녁까지 불을 환히 밝히고 있다. 박승근 기자

바로잡습니다 지난호 거진중학교 학교 탐방 기사 가운데 교장 선생님 사진설명에 잘못 나갔습니다. 거진중학교 교장은 백흥기 선생님입니다. 이점 본인과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김광섭의 고성이야기 <14>

고성팔경(高城八景)⑥ 건봉사(乾鳳寺) III

금강산 건봉사 주변의 명소

『건봉사본말사적』에 따르면 금강산 건봉사의 배경으로 매우 빼어나게 아름답고 이름난 명소는 ‘구절폭포(九折瀑), 봉암(鳳岩), 보림동(普琳洞), 소신대(燒身臺)’라고 한다. 대웅전(大雄殿)의 중심하여 서쪽 계곡에는 봉암과 보림동이 있고 북동쪽으로 소신대가 있으며, 남쪽 산 넘어 구절폭포가 위치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구절폭포, 보림동, 등공대.

구절폭포(九折瀑)= 간성을 해상리(海上里)에서 탐현리(塔峴里)를 향해 가다 보면 건봉사입구 못미처 마지막 고개 좌편 계곡(북구골)에 폭포가 있는데, 이곳에 백운동(白雲洞)의 하류(下流)가 멀리 돌아 이층 번 휘돌아 폭포를 이루고 있는 것을 ‘구절폭포’라고 부르고 있다. 폭포의 높이가 약40尺(12m)나 되며 이 지역의 자연적인 경치가 아름답고 고을 뿐만 아니라 기품(氣品)이 맑고 시원스럽다. 택당(澤堂) 이식(李植, 1631~1632 간성현감)은 재임 시 폭포를 ‘기읍대’라 이름 하였다고 한다.

봉암(鳳巖)= 건봉사로부터 적멸보궁 서편으로 있는 계곡을 따라 1.5km 올라 가면 두 갈래의 계곡이 나오는데 바로 남쪽 좌편 계곡으로 100m 정도 위쪽 봉암암(鳳岩庵)의 북쪽에 바위가 있는데 봉황새 모양을 닮은 돌이 깎아지른 절벽에 기이한 광경은 어디에서나 볼 수 없는 경치이다. 이 봉(鳳)바위가 절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여 건봉사라는 절 이름이 유래하고 있는 바위이다.

보궁 서편 계곡을 따라 보림암(普琳庵)에 이르는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산천이 수려하고 수석이 씻겨 아름다운 비경(秘境)을 이루어 자못 신선세계(神仙世界)를 방불케 한다.

소신대(燒身臺)에서 등공대(騰空臺)= 건봉사 대웅전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도보로 40~50분 거리에 오르면 아름다운 주변경치가 한눈에 들어온다. 두 개의 능선 중 동편 능선의 끝에 자리하고 있는 소신대(오랫동안 돌을 쌓아서 모시던 곳)가 지금은 등공대(騰空臺)라고 한다. 스님들이 회향하신 후 오랜 세월 다 비장소로 이용되기도 했으나 세월이 지나 황폐해지자 이곳에 기도를 다녔던 양씨 성을 가진 연대월이라는 보살이 절(건봉사)에 100원 시주를 내 놓아 부도를 세울 것을 제안하여 절에서 900원을 보태 1915년(제5회 염불만일회) 때에 부도를 세워 기념하는 성지인데 선남

선녀(善男善女)들의 신앙의 표적이 되고 있다.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국립문화재연구소(2000)」에 따르면 지대석과 탑신 받침, 탑신과 보주가 각각 일체로 만들어졌다. 지대석 위에는 탑신 받침을 8각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지대석과 일체하고 있다. 각 면에 4개 단엽복련을 조식하고 8개 각 모서리에도 역시 각 1개의 단엽복련을 조식하였다. 탑신은 중형으로 거의 원통모양이다. 탑신의 서남쪽에 장방형(80×37cm)의 액을 음각하고 액내에 ‘三十一人騰空 遺蹟紀念之塔’이라 새겨져 있다. 탑신 위에는 탑신과 일체로 보주를 올려놓았다. 탑신과 보주의 높이는 172cm, 탑의 둘레 310cm이다.

현재 탑신부에는 20여발의 총탄흔적이 남아 있고 음기(陰記)로 ‘四年乙卯七月日立’이라 적었으며, 기단부에는 좌행으

로 ‘石工 李元浩’라 적고 있다. 화강암인 지대석의 크기는 158×153×36cm이며 거의 정방형인데 모죽임을 하였다. 탑 앞에는 상석과 향로석이 있는데 크기는 가로185cm, 세로76cm, 높이25cm이며 가로55.5cm, 세로42.5cm, 높이28cm이다.

※ 지난호 소개된 불이문 내용 중 천정 현판글씨 가운데 운암당봉헌(雲巖堂奉欣)을 설암당봉헌(雪巖堂奉欣)으로 정정합니다. 반야사 해안 스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김 광 섭

- 향토사학자
- 국사편찬위원회 시료조사 위원
- 고성향토문화연구회 사무국장
- 논문: <선유담의 고찰>, <간성의 만경대와 누정 고찰>